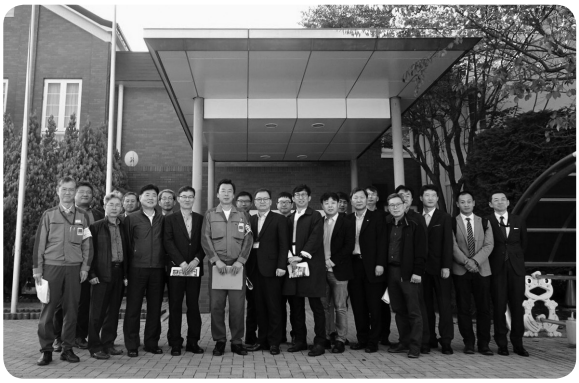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개최

3개 기술세션 12편 논문 발표, 후쿠시마·오나가와 원전 시찰

세미나 전경

한·일 양국 대표단



후쿠시마 제1원전 PR센터

오나가와 원전 발전소장이 원전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와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4회 한 · 일 원자력산업세미나가 10월 16일(월)부터 10월 18일(수)까지 일본 도쿄 Belle Salle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 한국대표단(단장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총22명이 참석했다.

10월 16일 세미나는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 KAKU Kenichi PR제2그룹장의 「일본의 지층처분 프로젝트 개요 및 현황」과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김용수 교수의 「한국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 양국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후쿠시마 재건과 후쿠시마 제1원전 제염 · 해체」, 「원자력시설 해체」, 「원전 지진대책 방안」 등 3개의 기술세션에서 한국 측 6편, 일본 측 6편 등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양국 참가자들은 일본 측의 「Mihama 원전 1, 2호기 해체 계획」이나 「BWR 슈라우드(shroud) 교체 사례」와 한국 측의 「한국 원전 해체 계획」 등 제염 · 해체 분야에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특히 일본 측 참가자들은 신고리 5, 6호

기 공론화 과정 등으로 인해 원자력산업계의 변화를 맞은 한국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 후 한국대표단은 원자력시설의 중대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과 오나가와 원전을 시찰했다. 시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4개 발전본부 소속의 발전소장, 운영실장, 기술실장 등 원전 운영 실무진이 다수 참석하여 일본 측 실무진과 원전 자연재해 사전 대비의 중요성, 사고 대응 경험과 안전성 증진 노력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술적 발전과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한 · 일 양국간 세미나 및 산업시찰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전문교육 및 일본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현장 견학

일본 현장견학단의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방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양대 원전해체연구센터는 「2017 하반기 원자력시설 제염해체기술 전문교육 및 일본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다.

10월 11일~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하반기 전문교육과정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등 국내 원자력 주요기관에서 55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여 해외의 원전 해체 사례 분석,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를 위한 준비에 걸맞는 교육을 받았다.

전문교육 이후에는 총 16명의 일본 현장견학단을 구성하여 10월 15일~19일까지 4박5일간 일본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현장을 견학하였다. 견학 기간 중 '제34회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의 원자력시설 해체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후쿠시마 사고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절단기기를 제작 · 공급하는 다이이치커터흥업(주) 본사, 일본 최초로 가압경수로(PWR)를 해체하고 있는 관서전력(주)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현장, 발전소 해체 폐기물의 분류 및 임시보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후겐 원전해체기술센터와 후겐 신형로(ATR) 해체 현장을 방문하였다.